

## 멀티미디어 표준 및 특허동향 워크샵

□ 최근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에 따른 멀티미디어 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, 이에대한 국제표준 및 특허동향의 최신 정보를 알리기 위한 「멀티미디어 표준 및 특허동향 워크샵」이 4월9일(금)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되었다.

o 차세대 성장동력원으로서 국내 멀티미디어산업의 활성화와 기술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기술표준원이 주최한 이번 워크샵에서는

o 정지영상(JPEG)과 멀티미디어 동영상(MPEG)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 대응방안 및 최신기술동향, 산업계에서 기술개발시 고려해야 할 관련 특허동향 등 15개 주제가 발표되었다.

□ 미국, 일본 등과 동등한 수준의 국제표준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멀티미디어산업은 우수한 IT인프라와 더불어 향후 수출주도형 유망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써

o MPEG분야에 총60건의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에 채택(전체 15%) 되었고, 이중 28건의 핵심기술이 특허로 등록되어 작

년까지 5,800만 \$의 특허료 수입을 기록 중이다

□ 기술표준원은 이번 워크샵을 통하여 멀티미디어 관련업계의 국제표준 대응력 향상 및 산업화 촉진과 더불어 향후 기술수출형 주도 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.

## 우리나라가 제안한 안전표지를 ISO 국제표준안으로 채택

- 보안경 착용 등 6종 -

□ 우리 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(ISO)에 제안한 '보안경 착용', '귀마개 착용', '비상대피소', '비상시 유리창을 깨고 여시오', '의사', '맹견주의'의 6종의 안전표지가 국제표준안 (ISO/DIS)으로 채택되었다.

□ ISO는 '작업장 및 공공장소의 안전표지'에 대한 국제표준안으로 13종을 채택하였으며, 그 중 6종은 우리 나라의 제안이 채택되었고 나머지 7종은 영국이 3종, 독일이 3종, 미국이 1종 순으로서 우리 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.

□ 특히, 이번에 채택된 '귀마개 착용', '보안경 착용'의 안전표지는 동양인의 얼굴형태로서, 지난 30여년간 유럽이 사용해 오던 서양인 얼굴형태의 안전표지를 우리 나라

가 제안한 국제표준의 안전표지로 모두 교체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.

- 앞으로, 기술표준원은 보다 많은 우리의 기술과 시스템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고, 디자인 강국으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공공안내 및 안전표지의 국제표준 제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### 국내 신뢰성인증 품목의 유럽 CE마크 부착 가능

- 승강기 부품에 대한 상호인정을 위한 업무협정 체결 -

- 우리나라에서 신뢰성인증(R-Mark)을 받은 승강기 부품에 대하여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유럽의 CE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다. 기술표준원에서 인증하고 있는 신뢰성인증마크의 평가기관인 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유럽의 DNV와 승강기 부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신뢰성 평가기준과 유럽의 CE마크 부착기준을 상호 인정하는 업무양해협정을 체결하고 신뢰성 인증품목에 대하여 유럽의 CE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.
- 이번에 체결한 업무양해협정은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뢰성 인증(R-Mark)품목

에 대하여 유럽에서도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상호 인정대상인 승강기 관련 부품뿐만 아니라 신뢰성 인증품목의 해외인지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### 비닐하우스용 파이프 강도 강화된다

- 파이프 두께에 관한 KS 규격 제정 -

- 최근 집중호우나 폭설과 같은 기상이변이 발생할 때마다 비닐하우스가 붕괴하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 가뜩이나 힘든 농가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, 기술표준원은 비닐하우스용 파이프의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한국산업규격(KS)을 개정키로 하였다.
- 비닐하우스의 붕괴 요인으로는 파이프의 설치간격 등 농촌진흥청에서 지도한 설치 표준을 잘 지키지 않는 것 이외에도 설치시 KS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이프의 굵힘보다 지나치게 굵혀 가공하여 파이프의 하중 지지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.
- KS 규격에는 파이프 지름의 6배 이상되는 곡률반지름으로 굽혔을 때 표면에 균

열 등의 흡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

- 이와 더불어 일부 농가에서는 원가절감을 위해 두께가 얇은 파이프를 종종 사용하고 있으며, (현행 KS 규격:파이프의 두께 1.0mm에서 2.0mm까지 0.2mm 간격으로 규정)

최근에는 비닐하우스가 점차 대형화하는 추세에 있어 파이프에 부가되는 하중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1.0mm 등 얇은 두께의 파이프를 KS에서 삭제하여 비닐하우스용 파이프의 하중 지지력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.

- 기술표준원은 2004년 4월 1일 KS규격 개정을 위한 예고령 고시하였으며, 향후 관계기관 및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KS규격에 반영할 예정이다.

○ 규격 개정 일정

- KS 규격 개정예고 고시 ('04. 4. 1 ~ '04. 6. 1)
- KS 규격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회의(예고기간 중)
- KS 산업표준심의회 철강부회 심의 ('04. 6월 중)
- KS 규격 개정고시('04. 6월 중)

## EU-ASIA LINK 프로젝트에 한국 참여

- 표준화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을 위해 독일 함부르크연방군대학과 양해각서 교환 -

- 기술표준원은 EU가 아시아 17개국과 공동으로 표준화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EU-ASIA LINK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'04. 3. 19일 양해각서(MOU)를 교환하였다.

- 동 양해각서 교환을 통해 EU가 운영하는 모든 표준화강좌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표준화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, 표준인력의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되었다

- 또한 EU-ASIA LINK 프로젝트의 참여로 표준화관련 프로그램의 공동개발은 물론, 표준화 홍보 및 아시아 각국의 표준전문인력 양성에 참여함으로써 아시아에서 주도적 위상을 확보하고자 함

※EU-ASIA LINK 프로젝트

- EU가 표준화·에 대한 고과과정개발 및 전문네트워크개발을 아시아국가들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

- 함부르크 스자 독일 연방군 대학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유럽에서 15개국, 아시아에서 17개국이 참여
  - ※ 함부르크대는 독일 아헨공대, 네덜란드 델프트공대 및 에라스무스대 등과 공동으로 표준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중
- 개발중인 주요 교육프로그램으로는 (1)기업경영의 도구로서 표준화의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 (2)표준과 조결된 시장구조 하에서 기업의 전략적 행동방법 등임

### 상하수도서비스 국제포럼 대전에서 개최

- 지구촌의 물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위생적인 물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UNEP 특별총회 및 세계 환경장관회의가 제주에서 개최된데 뒤이어, 개도국과 선진국간 실질적인 물공급체계 상호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「상하수도서비스 국제포럼」이 4월 16일 대전(한국수자원공사)에서 개최되었다.
- 국제표준화 기구(ISO)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개도국의 상하수도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선진국의 물공급체계를 개도국에 접목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키 위하여 21개국 150여명의 전문가가 참가하였다.

○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측에서 한국의 물서비스정책방향(환경부 윤석중 과장)과 한국의 물서비스 실태(한국수자원공사 안효원 부장)에 관한 발표가 있었으며, 농고·베트남이 자국의 현황을 발표하고, 일본, 독일, 캐나다 등 선진국의 좋은물 공급방법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는 후 개도국과 선진국간 협력방안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.

□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UN이 정한 물부족국가로서 물문제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이 긴요하며, 앞으로 우리나라 물관련 회사가 세계시장에 진출할수 있는 안목과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게 이번 포럼개최의 의의라고 볼 수 있다.

#### □ 포럼거쳐 배경

○ 세계보건기구(WHO)와 세계은행은 향후 15년간 전세계인구의 16억명에게 상수도를, 22억명에게 하수도를 추가로 공급해야 한다고 발표

- 중슬본의 3/5이상인 인구가 많은 중국, 인도, 동남아 등 아시아지역에서 시행 될 전망
- 지난달 29일부터 저주에서 개최된 세계 환경장관회의에서도 10억이상의 인구

이거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것과, 25억 인구에 대한 위생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한바 있음

- ISO에서는 세계공통의 상하수도서비스 국제표준을 제정하기어 앞서 가도국의 상하수도 보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상하수도서비스 국제표준화회의를 개최하는 우리--리에 포럼 개최를 요청

요청배경에는 ISO에서 물과 관련한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프랑스의 입김이 크

게 작용한 것으로 추측되는데, 프랑스는 비올리아, 온디오 등 세계 최대 물회사를 갖고 있어 그 배경에 구추가 주목됨

- 한국수자원공사는 금년 세계 최고수준의 “국제수돗물종합검사센터”를 준공하고, 국제시장에 적극 진출하여 프랑스 등 유럽의 물회사에 버금가는 세계 굴지의 물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이번 포럼거회에 적극 동참 



멀티미디어 표준 및 특허동향 워크샵